



함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

20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업 연차보고서



학교가는 라오스의 산간지역 아이들



목 차

감사의 글	05
-------	----

후원자와 '함께' 만든 변화	06
-----------------	----

10년의 발자취	08
----------	----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_브릿지 프로그램	10
-----------------------	----

세븐틴 고잉투게더 캠페인	24
---------------	----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포럼	28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30
----------------------	----

후원자 이야기	32
---------	----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36
-------------	----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38
------------	----

재정보고	42
------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42
-------------	----

참여 방법	44
-------	----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의 꿈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울 때,
비로소 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948



요르단 독서교육대사 사업을 통해 받은 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소녀

감사의 글



지난 한 해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세계적 경제 불안과 금융 위기, 전쟁과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은 우리 위원회의 후원 모금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10년간 후원자님과 함께 수많은 지구촌 소외계층 이웃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꿈을 품게 됐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성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글과 기술을 배운 14만 명의 학습자들과 이들의 학습을 도운 약 1만여 명의 교강사들, 그리고 15만 개의 교재 및 물품 지원은 후원자님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작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파괴된 말라위의 학습센터를 재건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8개국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7월에는 한국전쟁 참전 19개국 70여 명의 전후세대 청년들과 함께하여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새기는 소중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소중한 의미 있는 변화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이야기가 후원자님의 마음에도 큰 자부심과 보람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 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시대를 앞서 바람직한 미래를 이끌었던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인류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후원자님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한경

후원자와 '함께' 만든 변화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누구나, 언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3년도에도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라오스 학교 밖 아동을 위한 학력인정교육 수업



10년의 발자취 08

브릿지 프로그램 10

고잉투게더 캠페인 24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28

10년의 발자취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 10년동안 변함없이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선사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2011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및 과학교육 사업 실시

아시아 5개국에서 기후변화교육사업과 과학교육 사업 실시

2013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브릿지 아프리카' 개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문해 교육개발협력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브릿지 아프리카'가 교육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재정비

2010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청년지역전문가 양성 사업 착수

아프리카 6개국에 청년 활동가 16명 파견, 청년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 (한국국제협력단과 삼성전자의 민관협력) 시작

2012

'세종 프로젝트' 착수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기관의 문해사업을 지원하는 '세종 프로젝트'를 아시아 4개국에서 착수

2015

'브릿지 아시아', '브릿지 워크숍' 개시

- '세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아시아 6개국에서 문해 및 기초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브릿지 아시아' 사업 개시
-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브릿지 협력기관이 서울에 모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이후 해마다 실시해 대한민국 교육 양자 ODA 성과를 다자협력의 틀로 확산





2016

현지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중심 사업 수행체계 구축

- '브릿지 아프리카' 협력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교육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현지 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수행체계 구축
- 말라위 릴롱게에서 아프리카 지역 7개국이 참여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 개최

2020

'브릿지 2단계' 개시

- 8개국에서 실시한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과 13개국을 지원한 '브릿지 아시아' 사업 종료
- 5년간 국가별로 1백만 달러 규모의 '브릿지 2단계' 사업을 동티모르, 라오스, 부탄에서 시작

2024

'브릿지 2단계' 확대

- '브릿지 2단계'에 스리랑카, 요르단, 파키스탄을 대상 국가로 추가

2018

'브릿지 아프리카' 점진적 종료, '브릿지 2단계 사업' 기획

- '브릿지 아프리카' 국가사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브릿지 2단계 사업 기획

2021

'브릿지 세종' 시범사업 실시

- 유네스코 세종 문해상 수상기관의 문해사업을 4개국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실시
- '브릿지 2단계'에 아프리카 말라위를 대상국가로 포함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_브릿지 프로그램

Education transforms lives: 교육이 삶을 바꿉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글을 읽고 쓰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각자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글을 읽고 쓰면서,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합니다.

글을 읽고 쓰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과 연결됩니다.

'문해: 글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성인인구 **100**명 중 **13**명은 글을 읽지 못하고,

2억 **5,8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1억 **5**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현황

문해율



학교 밖 청소년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스리랑카 요르단 우루과이 파키스탄 한국

*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https://sdg4-data.uis.unesco.org/>)

(국가별 조사연도 및 데이터 출처는 다름)

BRIDGE makes it happen: 브릿지가 만듭니다

“교육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재건 계획 최종보고서(1953), 유네스코/유엔한국재건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민의 손에 빵이 아닌 책을 쥐어준 것이 유네스코였고,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처럼,
누구든 배움의 기회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구촌 소외된 이들을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에게
읽기와 쓰기, 셈하기, 생활과 기초직업기술을 가르치고,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학습 자료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가 교육 정책에서 학교 밖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2023년에도 브릿지 프로그램은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스리랑카, 요르단, 우루과이, 파키스탄 8개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기회의 다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135개소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476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635명



교재 및 물품 배포

19,474개



우루과이

동티모르(Timor-Leste)



수도: 딜리(Dili)

인구: 약 134.1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테툼어 및 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도 사용)

면적: 14,954km²

종교: 천주교(97.57%), 개신교(1.96%), 이슬람교 등

1인당 GDP: \$2,389.30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3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13개소



교육프로그램(문해, 기초직업훈련) 참가자 수

1,401명



교재 및 물품 배포

723개

동티모르는 오랜 식민지배 끝에 2002년에야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UN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아시아의 9개 최저개발국 중 하나로, 국가의 재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식민지배에 기인한 낮은 문해율로 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동티모르 13개 주에 15곳의 지역학습센터 개소를 지원하고, 이곳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쿠다올론 지역학습센터 학생들



쿠다올론 지역학습센터 컴퓨터 교실 수업장면



완공된 마누파히 지역학습센터

라오스(Laos)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752.9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라오어 및 프랑스어
 면적: 237,955km²
 종교: 불교(70.7%), 기독교 (1.7%),
 무종교/무신론(31.4%)
 1인당 GDP: \$2,054.43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30개소



교육프로그램(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참가자 수

1,060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60명



교재 및 물품 배포

6,990개

라오스는 국토의 약 80%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며, 많은 지역에서 학교 접근성이 낮습니다. 빈곤 가정의 초등학교 이수율은 58% 수준에 불과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졸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는 가정이 많고, 가난한 환경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과 통행이 어려운 산간지역 루앙프라방, 사야부리, 사반나켓 3개 주의 30개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어도 마을에 있는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학력인정교육을 이수하여 초등교육 졸업장을 받고,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학교 밖 아동 대상 학력인정교육 수업



지역학습센터에서 판매중인 바구니와 빗자루



라오스 학교 밖 아동 대상 교육물품 배포

말라위(Malawi)



수도: 릴롱웨(Lilongwe)
인구: 약 2041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영어 및 체와어
면적: 118,484km²
종교: 기독교(80%), 이슬람교(13%) 등
1인당 GDP: \$645.16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4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4개소



교육프로그램(문해, 방과후,
유아교육) 참가자 수

2,445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참가자 수

100명



교재 및 물품 배포

6,615개

1인당 GDP 635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조혼이나 일부다처제, 성인식 등의 불합리한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IV/AIDS 등의 질병이 만연하며 초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아동 비율이 69%에 달합니다. 교사 한 명이 많게는 120명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해 교육의 질도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릿지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비형식교육은 단순히 형식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방과 후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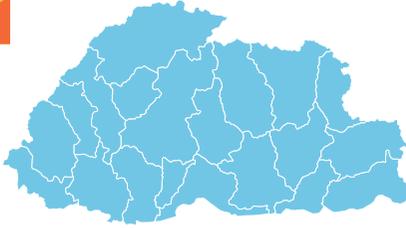


말라위 사이클론 피해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복원



새로 건설된 이부즈야 지역학습센터와 자원봉사자들

부탄(Bhutan)



수도: 팀부(Thimphu)
 인구: 약 78.25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종카어
 면적: 38,394km²
 종교: 티베트 불교(74.8%), 힌두교(22.6%),
 민속 신앙(1.9%) 등
 1인당 GDP: \$3,560.20 (2021, World Bank)

사업성과



비형식교육 정보관리체계
 운영

1종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35개



교사 및 관계자 연수
 참가자 수

186명



교재 및 물품 배포

5,058개

2023년 12월, 부탄은 UN의 최저개발국 범주에서 공식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는 1971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이룬 성과로, UN은 국민의 총 행복을 주요 개발지표로 삼는 부탄의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이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 비문해자의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남성과 여성 간 문해율 격차도 17%에 달하며, 도시농촌과 세대 간의 교육 격차는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 사이의 틈을 더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내는 성장의 가도 위에서 국민들의 삶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브릿지 프로그램은 교육의 기회를 농친 성인, 특히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비형식교육센터 재봉교실 수업장면



부탄 지역학습센터 직업훈련교육현장 모니터링



개정된 비형식교육 과정 교사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

스리랑카(Sri Lanka)



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입법)(Kotte),
콜롬보(경제/행정/사법)(Colombo)
인구: 약 2,218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및 영어
면적: 65,610km²
종교: 불교(70.2%),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기독교(7.4%) 등
1인당 GDP: \$3,354.83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23개소



교육프로그램(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참가자 수
1,361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참가자 수
73명



지역사회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3회

2023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51.7%)을 겪은 스리랑카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경제위기로 많은 스리랑카 아동들이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기 학교 중퇴가 예상되는 아동이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비록 최근 스리랑카의 경제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아동교육은 경제위기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빈곤층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학교에 갈 수 없는 특수 아동이나 약물 중독을 겪은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전국 각지의 지역학습센터에서 기초문해교육과 기초직업훈련을 진행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역학습센터 수업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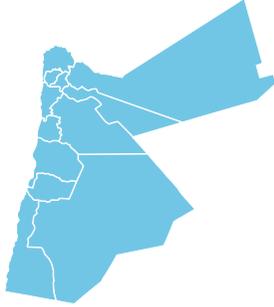


아무누콤부라 센터의 교사 연수



지역학습센터의 장애아동 문해수업 장면

요르단(Jordan)



수도: 암만(Amman)
 인구: 약 1,129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아랍어
 면적: 89,342km²
 종교: 이슬람교(90%), 그리스도교(8%) 등
 1인당 GDP: \$4,311.00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도서 낭독 세션 개최
2,137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
2,591명



교사 연수(독서교육대사 교육)
 참가자 수
88명



교재 및 물품 배포
88개

요르단 왕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부유한 여느 아랍 국가와는 달리, 국가 경제 기반이 약해 국가 운영에서 대외원조의 비중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국민들은 시리아 난민 130만 명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12.7%에 해당하며, 요르단은 자국 인구 대비 난민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교육 기반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난민 학생 수가 늘어나자, 요르단의 학교들은 오전에는 요르단 학생이, 오후에는 난민 학생이 수업을 받는 2부제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난민 출신 아동은 교육 소외 문제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릿지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독서교육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아이에게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초 문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도서 낭독 세션에 참가한 아이들과 독서교육 대사



난민 여성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낭독 세션



독서교육 앰배서더 훈련 중인 어머니들

우루과이(Uruguay)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

인구: 약 342.3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스페인어

면적: 176,215km²

종교: 천주교(41%), 개신교(12%), 무종교(41%) 등

1인당 GDP: 20,795.04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다목적 도서관 설립·운영

6개소



교육프로그램(재소자 문해, 다목적 도서관 운영)참가자 수

390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참가자 수

80명

우루과이는 인구 35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중남미의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대비 수감률이 높아,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범죄 유발 요인에 취약한 빈곤 지역 출신으로, 우루과이 전체 비문해 인구 중 재소자의 비율은 53%에 달합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재소자 대상 문해교육을 통해 이들의 원만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도움으로써 범죄 재발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재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해교육 워크숍에 참여 중인 재소자



재소자 대상 다목적 도서관 운영 교육



재소자 대상 다목적 도서관 운영 교육

파키스탄(Pakistan)



수도: 이슬라바마드(Islamabad)
인구: 약 2.385억 명 (2022, World Bank)
언어: 우르두어 및 영어
면적: 881,913km²
종교: 이슬람(96.03%), 힌두교(1.85%)
그리스도교(1.59%) 등
1인당 GDP: \$1,588.88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24개소



교육프로그램(문해,
교사역량강화, 기초직업) 운영

1,288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참가자 수

48명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29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율이 39%로 높은 수준이며, 문해율은 59%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특히, 여성 문해율은 46%로 국가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파키스탄의 청년층 여성들은 여성 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기반 부족,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지역학습센터를 지원하며 농촌의 여성 청년에게 문해교육 및 기초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동식 도서관 앞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건강위생 인식제고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여성들



디지털 허브를 통해 컴퓨터 수업을 듣는 여성 학습자들

현장에서 온 편지



동티모르 리키샤 지역학습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리노 선생님

제가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리키샤 지역학습센터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청년들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벗어나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모여 리키샤 전역, 나아가 동티모르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어요.



말라위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의 자원봉사자 치소모 선생님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서 처음엔 자원봉사자로, 이젠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게는 비록 하반신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멋진 사업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제 삶의 큰 기쁨이에요! 지역학습센터의 수업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돕고,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브릿지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해요.



라오스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브릿지 프로그램 담당자 생파파 씨

저는 2020년부터 브릿지 프로그램을 라오스에서 담당하며 다양한 도전과 보람을 경험했어요.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순간들을 목격했을 때이죠.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비문해 청소년과 성인들이 중요한 문해력과 직업 기술을 습득하며,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힘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교육에는 변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런 힘을 토대로 브릿지 사업은 우리 라오스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부탄 차칼링의 지역 리더이자 비형식교육센터 학생인 소남 씨

집안의 맏딸로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늘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교육의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브릿지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저는 지역의 리더인 망미(Mangmi)로도 선출이 되었고, 매일 기도문을 직접 쓰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농사 기술과 지식을 익힐 수 있었어요. 삶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처럼 부탄의 많은 여성들이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글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아무누콤브라 지역학습센터의 이사니 학생

저희 센터에는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많은 학생들이 오픈 스쿨의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죠. 저의 고향 마탈레 지역에는 인쇄, 복사, 이메일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오픈 스쿨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사람들이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요르단 '위 러브 리딩'에 참여한 후 직접 책을 읽어주는 교사가 된 소녀 린

어머니가 독서교육 대사로 활동하시는 덕분에 '위 러브 리딩'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 왔고,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책 내용이 정말 재미있어서 저도 커서 독서교육 대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후 젊은 독서교육 대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법을 배워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도서 낭독 세션을 개최할수록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그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우루과이 재소자로 문해교육을 받고 책을 출판한 루이스 씨

교도소에 있는 동안 브릿지 프로그램의 문해교육을 통해 읽기와 작문을 배운 뒤, 살아온 지난 날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동료와 선생님께 글을 보여드렸는데 제 글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해 보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함께 읽고 편집한 끝에 마침내 <생존>이라는 책을 펴낼 수 있었어요. 이 책 표지에 "재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글귀를 넣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저와 제 동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더 큰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파키스탄 분야드문해협회의의 브릿지 프로그램 담당자 사이마 씨

브릿지 프로그램은 파키스탄 여성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여성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통적 역할의 한계를 넘어 사회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요.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센터를 열거나 자신의 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더 많은 여성에게 영향력이 생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기뻐요. 파키스탄 사회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보이지 않는 이들을 보이게 하는 것, 빈곤과 성차별로부터의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일이 브릿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동기이자 목표입니다.

고잉투게더(#GoingTogether) 캠페인

지속가능한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고잉투게더 캠페인,
세븐틴과 함께 가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희망

고잉투게더 캠페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븐틴이 2022년 8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 나를 바꾸고(#EducationCanChange_Me) ▲ 새로운 꿈을 꾸고(#EducationCanChange_MyDream)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EducationCanChange_theWorld) 메시지를 전달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봉봉이체 기부이벤트'(1.24~3.29)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 교육의 날(International Day of Education, 1월 24일)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븐틴은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봉봉이체 폰트 기부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봉봉이'는 세븐틴 공식 응원봉에서 착안된 캐릭터로, 봉봉이체는 글씨 쓰는 법을 배운 6살 봉봉이의 자유로움과 발랄함을 반영한 국·영문 서체입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기본권이자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역할에 대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배움을 인증하고 꿈을 선물한 '모두의 행동' (2.23~3.31)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참가자들이 배움에 대한 고민과 꿈에 대한 도전 및 다짐을 글이나 사진으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모두의행동'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에는 총 4,390명이 참여해 꿈을 위한 고민과 배움의 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하며, 모두가 교육받는 세상을 위한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 행동종료 #모두가교육받는세상

세븐틴도 응원하는
오늘, 나의 배움을 인증하기

👥 4,504명 행동참여 1,000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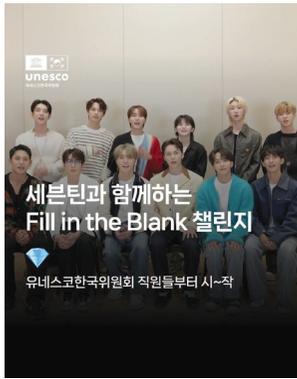
꿈을 쌓아가는 행동이 모여, 모두가 교육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How To

- 1 꿈을 위한 나만의 도전, 배움의 순간을 인증하기
- 2 하단의 좋아요,공유하기 클릭
- 3 리워드 받기: 세븐틴 친필 사인이 담긴 증식이 데스크 매트 (13명 추첨) or 기부쿠폰(스텝프 회사별) 받기

'캐럿'들과 함께한 캠페인 홍보 부스 (3.10~3.12)

교육 소외 계층 지원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븐틴의 팬미팅인 '세븐틴 인 캐럿랜드'에서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약 8천여 명의 '캐럿'이 부스를 방문하였고,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육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Fill in the Blank(10.23~11.1)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교육이 우리의 삶을 넘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 보는 'Fill in the Blank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폴란드, 중국, 캐나다,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 연령대의 캐럿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인상적인 메시지로 빈 칸을 채워주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포럼(11.15)

11월 15일(한국시각)에 열린 제13회 '유네스코 청년포럼' 스페셜 세션에서 세븐틴은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와 청년 170여 명을 포함한 약 13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그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븐틴이 함께 추진해 온 고잉투게더 캠페인의 성과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고잉투게더 캠페인 현장 소식

세븐틴의 후원으로 다시 교육의 기회와 꿈을 꾸게된 동티모르



오외쿠시(Oecusse) 지역학습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인사들

동티모르는 오랜 식민 지배와 내전을 겪은 후, 2002년에 독립한 신생 국가로,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해 동티모르 정부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계획을 통해 전국에 모든 65개 지역에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븐틴의 지원을 통해 동티모르의 오외쿠시와 마나투토 지역에 새로운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 지역학습센터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배움을 이어나가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센터들에서는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실이 조성되어 디지털 교육과 생활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틴의 따뜻한 후원으로 세워진 학습센터의 컴퓨터실은 세븐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외쿠시와 마나투토의 주민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말라위 태풍피해 복구 긴급 지원



사이클론이 휩쓸고 지나간 말라위의 모습 (출처: CNN)



말라위 지역학습센터에 도서 및 생필품을 나눠주는 모습

2023년 2월 21일, 초대형 사이클론 프레디가 말라위를 강타하여 국가 전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437개의 학교가 파손되었고, 307명의 교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어진 나미양고와 나피니 지역학습센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실의 천장이 떨어져나가고, 도서관은 물에 잠겨 그나마 있던 책들도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던 우물이 파문혀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해졌고, 전염병의 위험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븐틴은 교육 기회를 잃어버린 말라위의 교육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고잉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교육의 힘을 믿고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말라위로 전달되어, 물에 잠기고 천장이 떨어져 나간 나미양고와 나피니의 지역학습센터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협력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에 필요한 새 책상과 의자, 칠판을 마련하고, 전기와 수도도 다시 공급하였습니다.

사이클론 프레디는 말라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말라위는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지식을 함께 엮어 평화 위한 변화를 만들자!

유네스코는 청년을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이자, 필요한 지식의 보유자, 그리고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2029 유네스코 중기 전략(41/4C)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청년을 중심에 둔 다양한 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및 의료지원국 19개국 청년들과 대한민국 청년 등 70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청년의 마음에 평화를(peace in the minds of youth):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청년상과 유엔 청년 전략의 우선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평화를 위한 작은 걸음'으로서의 정전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7월 26일에는 참전유공자, 주한EU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청년 참가자들이 포럼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교육, 문화, 미디어리터러시, 환경과 기후변화, 과학 기술, 국제기구, 사람, 군사주의 등 8개 주제별로 진행한 사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7일 스페셜토크에서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연사로 나서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 당시 UN군 초전지였던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을 방문해 UN참전용사들에게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8일 오전에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유네스코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6.25 피난민과 월남자, 이산가족 문제를 연구해온 김귀옥 한성대 교수, 그리고 전 세계 분쟁지역을 누빈 김영미 다큐엔뉴스 대표와 함께,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그 동안의 탐구 프로젝트 활동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청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청년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조별 활동을 한 8개 주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은 대한민국과 세계 19개국의 청년들이 전쟁이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전쟁과 평화를 탐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들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전 70주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을 계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럼 참가 청년들의 목소리>

“우리 가족은 6.25 전쟁 이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 포럼에 참가했어요.”

- 이주현(한국 참가자)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며 다리에 두 개의 총알 자국이 남았고, 모든 친구들을 전쟁에서 잃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에릭 즐리안 베이커(미국 참가자)

“평화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다니엘 린데만(스페셜토크 연사)

“세계화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평화를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굴샤 바일락(벨기에 참가자)

“청년들이 평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포럼을 통해 희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 간승희(네트워크사업실 전문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Dream드림캠페인에 참여한 문성초등학교 학생들



후원자 이야기 32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36

후원해주신 분들 38

후원금 모집 및 사용 42

후원자 이야기

후원도 아는 만큼 보여요

박희진 후원자



안녕하세요. 먼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상반기에 한위 교육팀에서 연수인턴으로 제 첫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초심'을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바와 저의 가치관이 일치했다는 점, 한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위 후원 이후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동안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이 열어질 때마다, 또는 중요한 고민의 기로에 설 때마다 후원자로서 보게 되는 유네스코 활동 소식에서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사라져버린 초심이 그때마다 소란스런 마음 속에 어느새 고요히 자리하며 제 빛을 내주었어요. 후원을 통해 실제 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후원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고도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한 마을의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 지원부터 교사 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현실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릿지 사업을 통해 오지에 학습센터가 세워지는 일은 기적과도 같아요. 그 일에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을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가볍게 생각해 보면 후원은 윤리적 실천이자 일종의 가치 '소비' 이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자기만족, 자아실현, 뿌듯함과 보람됨 등 다양한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러한 솔직한 관점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기부 플렉스'나 '돈쫄넌다'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재밌고 유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에게서 후원이라는 행위를 깊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한적인 이미지 안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후원도 결국 아는 만큼만 보일 거예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는 일에 주체적으로 후원을 해 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할 거라고 확신해요. 잘 몰라서 조금 낯설 뿐, 절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후원이요?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만 할 순 없는 것 아닐까요

유광준 후원자



안녕하세요. 저희 한위의 교육 나눔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딸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두 사람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기부약정서를 담을 수 있는 큰 양말을 샀고 왜 이 선물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적은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성탄절 아침 머리맡의 양말을 열어본 부인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의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의 성별을 몰랐기 때문에 태명인 '제콩이'를 기부자 이름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과 함께 쓴 편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선물 선택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요?

딸아이의 탄생은 당연히 우리 식구나 친인척에게 크나큰 기쁨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구 저편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결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위의 도움을 받는 이 가운데 적어도 세 사람은 우리가 족의 건강과 행운을 정말 간절히 빌어주지 않을까요. 저희가 행복하면 후원 역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웃음)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을 후원기로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교육받아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잘 보여주었습니다.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이 세계 곳곳에서 또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작게는 제대로 교육받은 한 사람이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성실한 노력을 통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지은 복은 자녀에게 돌아가나니 애쓰고 또 애써 나누며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다는 의미로 곱씹습니다. 후원이요?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안으로부터의 부듯함이 넉넉한 자존감으로 연결되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후원금 자동이체 설정을 해 두고는 후원사실을 잊고 살면 어떤가요. 초심은 늘 아름다우니까요.

후원이 여전히 자연스런 선택인 이유

김광호 후원자(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총장님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장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은퇴하여 가장 좋은 점은 역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집안일을 하고, 고령의 아버지와 장모님을 돕고, 손자와 손녀 육아에 참여하는 일을 참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절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다시 오지도 않으리라 생각하여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끔 '슬기로운 인생 정리'라는 주제로 강의도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과 나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여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인데요.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소홀한 우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곧 삶을 밝게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대학에서 노년, 은퇴, '웰다잉', 영성 강좌도 했었는데 부족함이 많이 느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관심 분야의 책과 대하소설 등을 빌려와 읽는 재미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나면 봉사 활동 시간을 늘리고 싶기도 합니다.

퇴임 후에도 꾸준히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 그것은 혹시 '의리'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한데요.(웃음) 교육 전문가로서 한위의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후원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의리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이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도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에서는 매우 큰 일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금액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위에서 일하면서 다른 기관에 후원하던 것을 한 위로 모아서 정기 후원을 했고, 개인적인 계기가 있을 때 일시 후원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후원 금액을 많이 줄여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후원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기업, 기관, 단체들의 정기 후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빈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구촌 이웃을 후원하는 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사회, 문화의 발전은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교육 투자의 성공 사례입니다. 교육받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에서 학교 교육과 비형식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인적 자본이 만들어지고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교육받은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은 최종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 사업입니다. 내부의 의지와 외부의 도움이 결합되면 효과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후원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후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박환보 후원자(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동티모르 사업 현장 모니터링 출장 중인 박환보 후원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위의 인연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대학에서 교육사 회학과 비교교육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위와는 2012년 부르키나 파소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의 날 행사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SDG4-교육 2030 협의회, 교육ODA 전략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연구와 회의에 참여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한위의 브릿지 프로그램 평가, 기초연구, 타당성 조사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위의 브릿지 사업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인상 깊었던 사연이나 순간이 있으실까요?

2019년 초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동티모르 지역을 2023년 겨울에 다시 방문했을 때, 브릿지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지역학습센터의 시설이 개선되어 많은 학습자들이 기초문해교육과 직업 기술훈련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는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브릿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농촌의 지역학습센터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브릿지 사업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반적으로 교육ODA 사업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릿지 프로그램은 학습자,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비형식교육과 같이 교육ODA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위 교육나눔 사업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위와 함께하면서 당연히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이름으로 일시후원을 했을 뿐 정기후원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서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한위 사업에 후원을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한위의 전문성과 열정을 믿고 후원 결정을 내리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빈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구촌 이웃을 후원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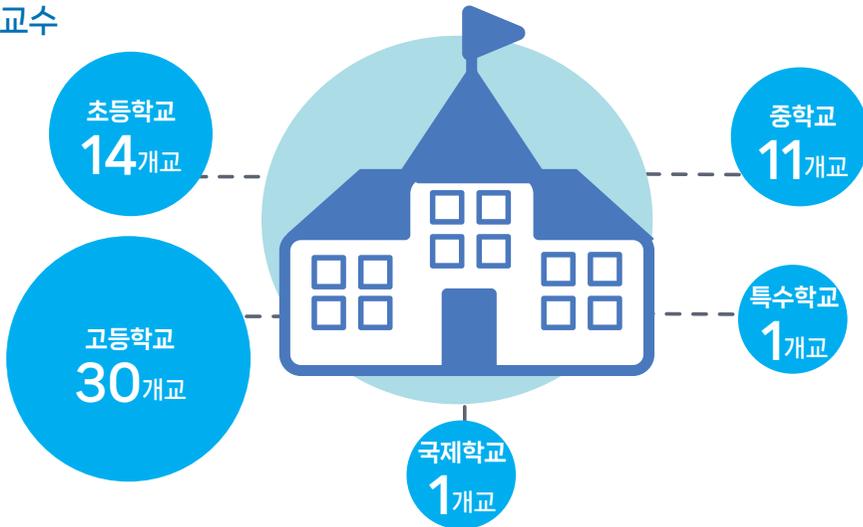
교육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도, 후원을 마음 먹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DREAM 드림 캠페인,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DREAM드림 캠페인'은 교내외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함께 희망의 꿈(Dream)을 전하는(드림) 유네스코의 학교 나눔 캠페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57개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희망나눔가게 운영, 저금통 기부, 바자회 개최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세상 곳곳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의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참여학교수



희망을 확산하는 Dream 드림 이야기

도초고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대전고등학교
<p>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도초고등학교에서는 세계 보건의 날과 세계 해양의 날, 세계 문해의 날 등 국제기념일을 기념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문해의 날에는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문해와 관련된 영화를 함께 보고 유네스코c다. 또한, 교내 행사인 금성제 기간에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을 전 세계 비문해 인구가 교육을 받아 읽고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p> 	<p>문성초등학교는 유네스코학교에 가입한 이래 매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500원의 행복 & 한 권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행사는 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두 권을 기증하고, 이를 다른 학생이 구입하여 얻은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실천하는 세계시민어린이 여권북'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문해교육을 받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보기도 했습니다.</p> 	<p>대전고등학교는 지난 5월 10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기부했고, 기부자의 정성스런 추천평이 담긴 책을 판매하였습니다. 책을 구입한 학생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장미꽃과 책갈피도 증정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따뜻한 마음과 책을 함께 나누면서 마련한 수익금은 개발도상국의 학교 밖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p> 

미림여자고등학교	하늘빛중학교	구룡중학교
<p>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유네스코학교인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유네스코 주간으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캠페인과 지속가능한 장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네스코 주간을 맞아 지속가능한 장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장터 활동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개발도상국 학교 밖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p> 	<p>경기도 김포시의 하늘빛중학교에서는 세계시민성과 평화의 문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다양성과 같은 유네스코학교의 주제들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들의 관심을 담아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공동체가 함께 'Dream 드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연합동아리와 전교생이 여러 종류의 마켓 활동에 참여하였고, 활동을 통해 모인 하늘빛중학교 세계시민들의 마음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구촌 교육 나눔을 위해 전달했습니다.</p> 	<p>구룡중학교에서는 특수 학급의 방과 후 학교에서 만든 한식 디저트를 활용하여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수 학급 학생들과 동아리 글로벌 리더반 학생들이 함께 '평화사회 카페'를 열어 직접 만든 한식 디저트를 판매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라는 유네스코의 중요한 가치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p> 
제석초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용연초등학교
<p>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는 유네스코&유니세프 동아리 '포더피플(For the people)'이 아동 인권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실천했습니다.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동아리에서 직접 개발한 '업사이클링'이라는 친환경 놀이를 주제로 부스운영을 하기도 했고, 교내 5행시 공모전이나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과 권리에 대해 알리고자 했습니다.</p> 	<p>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는 2017년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된 이래, 유네스코 정신을 함양하는 각종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유네스코 드림캠페인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바자회-벼룩시장> 행사를 학교 축제기간 중에 운영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고, 학생-교사-지역민과 함께 유네스코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모どり 회계반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바자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유네스코에 기부해 주셨습니다.</p> 	<p>울산 용연초등학교에서는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유네스코학교의 날'을 운영하여, 세계시민교육, 지구사랑 새활용 캠페인, 희망dream가게 등 3가지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각 교실에서는 아동인권과 지구환경의 두 가지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관련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웠으며,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뚜껑을 친환경 대나무 칫솔과 바피주는 새활용 캠페인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연초 학부모회가 주관한 '용연나눔장터'와 연계하여 '희망dream가게'를 열어 천연 린밤과 비누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p> 

2023년 'Dream 드림 캠페인' 모범 학교에 감사패 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3년 'Dream 드림 캠페인'의 모범 학교로 선정된 김포 하늘빛중학교, 통영 제석초등학교, 울산 용연초등학교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모범학교는 캠페인 활동 내용의 창의성, 헌신도(참여도), 감동성(나눔기여도), 영향력, 협력과 팀워크 등의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교육의 힘은 무한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유네스코 Future Frontiers(10년 후원자)

개인

강병규	고남균	권의재	김경범	김귀배	김남춘	김다현	김동진	김문원	김민호	김병호	김아람	김옥	김옥신
김은경	김은영	김인하	김지수	김지용	김지현	김현정	김현철	김환식	김효정	김희영	나인애	나주원	노지원
문연정	박경준	박시우	박은경	박지미	박찬진	방성주	백명기	백승현	서만교	서정아	서현숙	송경섭	송민희
송종진	신동직	신미아	신소애	신중범	신지영	신현운	양가운	양도혁	양혜원	여재욱	연제창	오영화	우덕기
유동철	유솔하	유승원	윤미란	윤석훈	윤선이	윤전애	윤희	이경애	이루미	이상용	이선경	이연숙	이재호
이조아	임선주	임태인	장수철	장신미	장지원	전진성	전현진	정다원	정석현	정예원	정지연	정진우	정희영
제하림	제환승	조영국	조영수	조우진	주준호	최낙현	최상일	최재연	최화영	한계수	한동민	형서운	홍윤경
홍은교	황규애	황상문	황제웅										

기업/단체 (주)윙키피컴퍼니 (주)커피비평가협회 세무법인 비전 대전지점

희망나눔가게 대도식당 안양점

유네스코 Future Makers

개인

JIN YINZI	TRESNAKIHACINTALOUISA	감도경	강경숙	강군석	강규한	강대성	강대용	강대중	강동진	강문선			
강미리	강미숙	강미영	강민선	강민채	강보성	강상규	강상원	강성원	강영옥	강영희	강영서	강은희	강자청
강정모	강준호	강지성	강지수	강지원	강지우	강지호	강춘근	강형빈	강혜경A	강혜경B	강혜린	강혜영	강효정
강희숙	계세협	고건우	고미정	고민정	고민준	고민철	고승용	고영권	고영수	고예지	고옥선	고유경	고윤서
고윤철	고지숙	고진석	고진아	고태완	고행오	고현준	공남희	공성필	공유훈	곽미진	곽병준	곽상우	곽우실
곽재윤	곽진	구기현	구덕모	구동관	구동현	구영미	구정일	구진곤	권다윤	권도형	권모정	권미숙	권미희
권부연	권소연	권오규	권오목	권은주	권정란	권진숙	권진옥	권진택	권태현	권혁연	금나영	기미라	김가비
김가희	김강자	김건	김건호	김건희A	김건희B	김경섭	김경재	김경진	김경철	김경희A	김경희B	김고은	김광호
김교정	김궁희	김근수	김근희	김금슬	김금준	김기찬	김기태	김기홍	김기환	김길원	김길현	김나라	김나연A
김나연B	김나운	김남규	김남수	김다솜	김다영	김다운	김대복	김대식	김대왕	김대현A	김대현B	김덕훈	김도진
김도훈	김동균	김동선	김동철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두례	김두용	김두준	김두현	김린	김마로	김만석
김면수	김명국	김명삼	김명신	김문정	김문환	김미성	김미손	김미연	김미영	김미원	김미정A	김미정B	김미현A
김미현B	김미화	김민상	김민석	김민이	김민정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범석	김병길	김병노	김병수	김병훈
김보옥	김복한	김봉균	김봉해	김부열	김상구	김상만	김서울	김서현	김석우	김선진	김성민	김성수	김성순
김성연	김성준	김성호	김성홍	김성환	김성훈	김세동	김세연	김세진	김세현	김세환	김소라	김소영	김수강
김수미	김수연A	김수연B	김수자A	김수자B	김수정	김수지	김수현	김수환	김숙희	김순애	김슬아	김승기	김승길
김승범	김신실	김아리	김아영	김안순	김양욱	김연서	김연주A	김연주B	김연희	김영관	김영근	김영민	김영복

김영옥 김영진 김영찬 김영화 김영희 김예숙 김예은 김옥경 김용배 김용선 김용일 김용호 김용희A 김용희B
 김우혁 김욱태 김원규 김원식 김원철 김유남 김윤일 김윤자 김은경 김은영A 김은진 김인곤 김인옥 김인철
 김자이 김재선 김재수 김재학 김재휘 김정경 김정민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 김정연 김정옥A 김정옥B 김정은
 김정중 김정철 김정한 김정호 김제이 김종남 김종민 김종오 김종원 김준구 김준형 김준휘 김지연A 김지연B
 김지오 김지원 김지현A 김지현B 김진권 김진량 김진민 김진성 김진웅 김창대 김창환 김채은 김철리 김철민
 김철호 김치훈 김태규 김태린 김태영 김태우A 김태우B 김태우C 김태웅 김태인 김태천 김태호A 김태호B 김필선
 김학경 김한나 김해길 김해란 김해자 김행선 김현진 김현곤 김현수 김현순 김현아 김현자 김현정A 김현주A
 김현주B 김현지 김현진 김형준 김형중 김형춘 김형희 김혜경 김혜연 김호경 김호근 김호수 김호영 김호철A
 김호철B 김화중 김화춘 김환승 김효동 김효진 김훈기 김희수 김희용 나금주 나민석 나영욱 나영일 나웅
 나정순 나희경 남막례 남상욱 남순희 남옥임 남운성 남유선 남유승 남윤아 남정덕 남정순 남지현 남지희
 남진영 남현령 노다경 노영란 노진희 노징남 도근여 도정만 도희철 라창선 류다은 류보라 류상영 류수민
 류승화 류장근 류제현 류현욱 명재민 문경준 문명덕 문성우 문성훈 문용남 문윤주 문일곤 문주란 문지현
 문해진 문희자 민병석 민성용 민승자 박경아 박경진 박경태 박관형 박관홍 박광우 박광호 박근홍 박기식
 박득춘 박명수 박명옥 박명재 박미경 박미란 박미선 박미전 박미정 박민건 박민규 박민선 박민수 박민희
 박병렬 박봉서 박상미 박상필 박상훈 박선우 박선주 박선화 박선희A 박선희B 박성민 박성진 박세진 박소연A
 박소연B 박소현 박수경 박수원 박숙희 박순례 박승기 박시현 박연수A 박연수B 박영규 박영대 박영민 박영서
 박영수 박영순 박영식 박영우 박영자 박영호 박영희 박예정 박옥봉 박유빈 박유정 박유진 박윤하 박윤후
 박은선 박은혜 박인환 박재형 박정빈 박정수 박정심 박정인 박정현 박정혜 박정호 박정희 박종선 박종안
 박종철 박주석 박주혜 박준환 박준희 박지성 박지연 박지우 박지원 박진솔 박진희 박찬승 박창식 박창오
 박철범 박치홍 박태연 박태준 박태형 박평호 박하나 박현숙 박현주 박현출 박형준 박효빈 박훈 박휘윤
 박홍순 박홍제 박희진 방영복 방정학 배권현 배상순 배서은 배영은 배은정 배정민 배정호 배정환 배진석
 배진한 배찬근 배대선 배혜연 백경기 백경연 백남식 백상철 백서연 백영연 백은정 백인호 백지현 백혜진
 변소운 변용석 변은모 변채원 빈지은 사우원 서강식 서개석 서광원 서동우 서동원 서병문 서성환 서수연
 서여록 서영준 서영택 서옥희 서점하 서중문 서지향 서창용A 서창용B 서철화 서헌수 서호현 석요셉 석정금
 선경호 선연희 설봉규 설옥경 성경환 성모진 성백제 성선조 성재훈 성지연 성한제 손명호 손상호 손석희
 손연주 손옥수 손용관 손정수 손정옥 손지희 손진주 손철완 손혜림 손희경 송경민 송광민 송기준 송다인
 송동호 송명규 송선용 송성민 송시훈 송영화 송예원 송용출 송윤 송은수 송인숙 송정화 송주복 송진우
 송현서 송호천 송희동 신대현 신동선 신동진 신명철 신민경 신민수 신상윤 신상태 신승경 신승원 신연숙
 신영균 신영환 신요한 신용태 신원식 신유경 신유정 신윤정 신은자 신정숙 신정인 신지애 신지영 신지원
 신진희 신찬의 신창현 신혜림 신훈 신훈철 심미순 심미옥 심상용 심영환 심숙화 심은하 안갑식 안경섭
 안광재 안도겸 안도균 안봉호 안상일 안서윤 안세은 안세정 안세준 안수연 안수호 안순정 안순주 안승현
 안영복 안예준 안익진 안재호 안정하 안홍기 안홍숙 양경용 양대석 양무인 양미숙 양방언 양병권 양세라
 양수진 양순화 양승례 양연주 양우홍 양유경 양일용 양주란 양희수 양희옥 양희주 엄두영 엄열을 엄은식
 엄태철 엄호룡 연장미 엄경화 엄광민 오경호 오광래 오남교 오대석 오덕주 오명열 오미경 오소녀 오소향
 오수길 오승교 오승봉 오승철 오승호 오애경 오웅진 오윤신 오주혜 오지형 오진선 오창열 오현철 옥연호
 옥은지 옥천수 왕지훈 우관문 우남일 우단체 우삼식 우승희 우진아 우태욱 원세연 원용준 원은주 원종현
 위민주 위성환 위행복 유경수 유경자 유광준 유기홍 유민철 유상국 유성상 유성종 유소영 유승애 유신혜
 유명미 유재걸 유정호 유종언 유지웅 유춘곤 유하은 유현수A 유현수B 유화중 윤경희 윤규식 윤근영 윤대승
 윤대준 윤병순 윤상호 윤석주 윤성숙 윤순정 윤영빈 윤영석 윤정배 윤종열 윤지영 윤진미 윤창득 윤창민
 윤태연 윤형준 윤혜원 윤훈현 이가연 이강수 이경민 이경분 이경우 이경미 이경찬 이경훈 이권조 이규창
 이규태 이근후 이금구 이금남 이기봉A 이기봉B 이기석 이기혁 이기호 이기홍 이남우 이남주 이누리 이대우
 이도현 이동수A 이동수B 이동원 이동훈A 이동훈B 이득구 이명이 이명자 이명재 이명희 이무현 이미애 이민욱A
 이민욱B 이민하 이병성 이병규 이병례 이병엽 이병호 이보남 이보락 이봉연 이상국 이상민 이상원 이상진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현 이석만 이석우 이석현 이석환 이선경 이선숙 이선정 이선중 이선지향
 이선훈 이선희 이성욱 이성현 이세경 이세연 이소현 이송림 이수림 이수만 이수진 이수하 이숙매 이숙원
 이순옥 이순자 이슬기A 이슬기B 이승묵 이승수 이승연 이승진 이승한 이승현 이시현 이안욱 이양혜 이연주A

이연주B 이영숙A 이영숙B 이영애 이영은 이영주 이영직 이영진 이예원 이완우 이용래 이원분 이원상 이원희
이위봉 이윤경 이윤서 이윤성 이윤식 이윤주A 이윤주B 이은선 이은성 이은솔 이은숙 이은주A 이은주B 이은화
이응민 이인재 이일순 이재건 이재관 이재권 이재승 이재영 이재은 이재일A 이재일B 이재호 이정민 이정석
이정선 이정윤 이정은 이정이 이정자A 이정자B 이정혜 이종근 이종기 이종범 이종천 이종철 이주현 이주호
이중욱 이지성 이지수A 이지수B 이지아 이지영A 이지영B 이지용 이지원 이지현A 이지현B 이지혜 이진성 이진우
이찬우 이창수A 이창수B 이채만 이창호 이태경A 이태경B 이태경C 이태우 이필래 이하늘 이한기 이한길 이한솔
이해성 이현경 이현승 이현아 이현우 이현행 이형 이형선 이형철 이혜경A 이혜경B 이혜경C 이혜영A 이혜영B
이혜지 이홍금 이효건 이효근 이효린 이효숙 이효진 이후승 이훈구 이훈우 이희정 이희진 임건호 임계원
임남빈 임미경 임병순 임병운 임봉욱 임삼미 임성우 임성현 임순화 임시연 임용섭 임우정 임이완 임인순
임재경 임재규 임재림 임재민 임재숙 임재학 임정민 임정화 임정희 임채미 임하은 임혜숙 임효선 임훈
장계훈 장기영 장미경A 장미경B 장미애 장미현 장민서 장상언 장석홍 장열 장영숙 장영희 장우영 장윤지
장인기 장자은 장재은 장정식 장재우 장준서 장진호 장차열 장희명 전경숙 전경호 전명숙 전미선 전민화
전서진 전성화 전소연 전영석 전영신 전영환 전은경 전종민 전주영 전현호 전형구 전홍수 전홍철 전환식
정구혁 정권환 정규진 정다겸 정동수 정동현 정미애 정미자A 정미자B 정미희 정병인 정봉근 정상규 정선옥
정수경 정수현 정신영 정아윤 정양희 정연권 정영환A 정영환B 정유은 정윤정 정은경 정은서 정은영 정은채
정익근 정익성 정인석 정일량 정재기 정재룡 정재욱 정재원 정재운 정재천 정재한 정정일 정종필 정준호
정중현 정지선 정지숙 정지영 정지윤 정찬주 정소윤 정한석 정현희A 정현희B 정형섭 정혜경 정혜미 정혜숙
정혜원 정희숙 제민서 조경래 조경부 조기열 조기하 조기현 조동환 조명순 조명일 조문경 조미정 조석영
조성경 조소는 조수빈 조수아 조수웅 조수현 조순옥 조승리 조시현 조양래 조양현 조영근 조영선 조예나
조옥선 조용덕 조욱연 조원빈 조은 조은비 조종오 조하연 조현 조현근 조현문 조현숙 조현욱A 조현욱B
조현웅 조현정 조현진 조홍찬 조호신 주기승 주명옥 주상현 주세영 주영아 주종민 주진 주진봉 주현성
지덕규 지현래 지형두 진기효 진성욱 진승이 진영순 진영희 차경연 차명주 차보영 차상윤 차선근 차영희
차정민 차주엽 채서연 채성묵 채성현 채승석 채승훈 채지운 채한규 채홍준 천미림 천영란 천이에 천정은
최경란 최경석 최기홍 최대용 최명림 최명진 최문희 최미선 최병용 최병익 최병일 최병조 최병현 최봄
최상숙 최상은 최석훈 최성호 최순덕 최순환 최신식 최연실 최영근 최영금 최영민A 최영민B 최영은 최영주
최은성 최용주 최원만 최월선 최유진 최유화 최은숙 최윤지 최은숙 최은용 최은정 최인경 최장명 최재명
최재혁A 최재혁B 최정규 최정윤 최정은 최정화 최지미 최지안 최지욱 최지인A 최지인B 최지혜 최창욱 최채원
최필규 최혜은 최혜진 최호순 최효상 최훈 최희선 추명호 추승재 추영신 추환수 표지은 표지환 하규빈
하든형 하령자 하미옥 하성엽 하우용 하윤지 하주영 하천일 하회근 한건수 한경구 한기명 한기석 한남임
한남혁 한다는 한미라 한미숙A 한미숙B 한미현 한병호 한보화 한상봉 한소원 한영주 한완영 한유미 한윤희
한정윤 한정화 한향림 한호 함미애 함영희 함용태 함운식 함진숙 함현수 허경욱 허남숙 허명호 허승배
허웅 허재욱 허정숙 허정훈 허정의 허중 허지연 허지원 허지윤 허지훈 허진호 허철행 현정희 홍계복
홍문기 홍석영 홍석준 홍성표 홍성화 홍승환 홍용자 홍은희 홍재곤A 홍재곤B 홍제역 홍제우 홍준수 홍춘자
황덕우 황도원 황명식 황명진 황별비 황별아 황병두 황서경 황선녀 황선영 황선우 황연재 황옥성 황육진
황의진 황인성 황재현 황주연 황주철 황준식 황진한 황현주

기업/단체

(주)김치빌리아드	(주)디자인박지	(주)상신정보통신	(주)어반비즈서울
(주)영진제어	(주)오오씨엘코리아	(주)유니크테크노	(주)중앙전자통신
(주)케미윌	(주)코젠바이오텍	ASPIRE고려대학교지부	갤러리샬 Gallery Sal
류와건축사사무소	링즈영어학원	남영산업	변호사이동한법률사무소
삼광씨앤비주식회사	세무사 이행종 사무소	순복음좋은교회	태웅건설주식회사
애니카랜드 가락점	경기대학교UN청년연합회	크라운호프 운서센터럴시티점	

희망나눔가게

(주)대흥포장	(주)제스아이티	금산주유소
---------	----------	-------

일시후원

기업(고액)

 Smilegate®	 구글코리아	
스마일게이트히망스튜디오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 포인트 나눔 캠페인)	플레디스 (고잉투게더 캠페인)

학교

초등학교(14학교)

감물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대구지묘초등학교	도마산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별원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서울송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왕남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중학교(11개교)

간재울중학교	구룡중학교	늘푸른중학교	대룡중학교	대청중학교	세화여자중학교
신도림중학교	연무중학교	태광중학교	푸른중학교	하늘빛중학교	

고등학교(29개교)

김해울하고등학교	대구경원고등학교	대구운암고등학교	도초고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문산수역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영일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세종대성고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예산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용인고등학교	운암고등학교	인천초은고등학교
전인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진접고등학교(창업심화연구부)	충남여자고등학교	태광고등학교
태전고등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특수학교(2개교)

덕수학교	청운한국학교
------	--------

개인/기업

Zhang Zhijing	강민정	고가은	공민지	구글나눔포인트	금서랑	김가은	김규리	김다현	김대웅	김선기	김선희
김성빈	김예지	김유미	김유진	김지성	김지울	김채현	김현아	김현영(헬로방방호평)	김현주	김혜령	김효원
마음이음	민병철	박가빈	박기영A	박기영B	박도현	박서윤	박소민	박옥선	배기동	송정호	송호준
안채린	안태식	양재홍	염예은	오예린	오현지	원해림	원해림	유현정	윤선우	윤현서	이근애
이순우	이은정	이주현	이채은	이현지	임정훈	임채연	임현진	장서현	장윤지	정다빈	정일지
주식회사 원바스	주식회사 카카오	최선휘	최성자	최연우	최인영	통영생명나무교회	한아름	한아조	주식회사		
한의영	한인구	허우림	허주연	현지윤	홍기택	홍도순	홍유빈	황미선	황선익		

후원금 모집 및 사용

후원자님의 값진 마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2023 수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사업비는 크게 일반대중 후원금, 기업 지정 후원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나뉩니다.

월별 일반후원금 수입(정부지원금 등 제외)

금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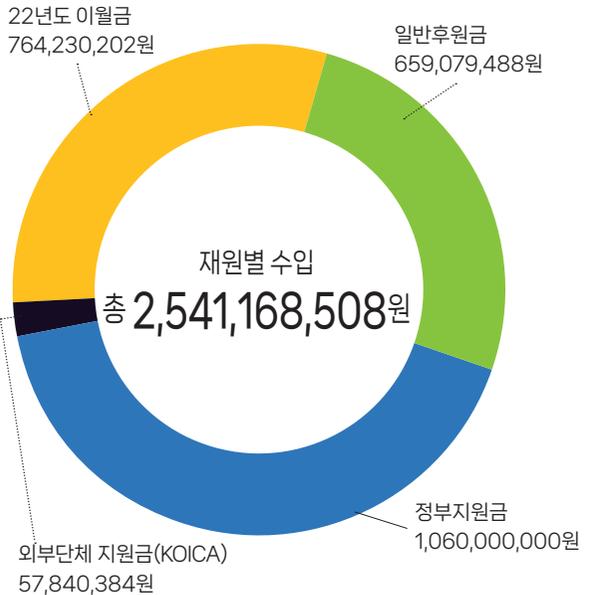
1월	41,931,990	7월	145,691,225
2월	40,446,919	8월	40,140,241
3월	44,349,172	9월	40,424,849
4월	72,812,514	10월	61,430,809
5월	42,175,499	11월	41,368,699
6월	42,939,875	12월	45,367,696
합계	659,079,488		



후원 사업 재원별 수입

금액 단위: 원

재원구분	세부구분	금액
후원금	일반대중 후원금	530,685,198
	기업 지정 후원금	104,376,000
	학교 나눔 활동 후원금	24,018,290
정부 지원금 (교육부)		1,060,000,000
외부단체 지원금 (KOICA)		57,840,384
잡수입(이자수입)		18,434
2022년도 이월금		764,230,202
합계		2,541,168,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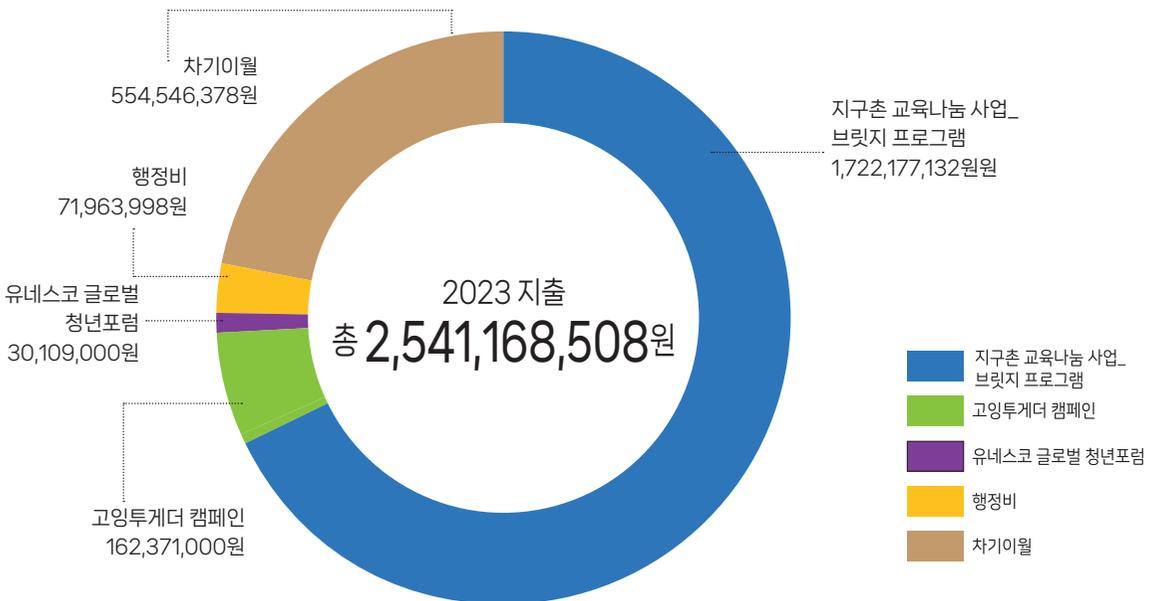


* 2023년 추진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양한 사업 중 브릿지 프로그램, 고잉투게더 캠페인,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포럼이 후원 대상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값진 마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2023 지출(정부지원금 등 포함)

구분	후원금		정부지원금 등		합계	차기이월
	일반대중 후원금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외부단체 (KOICA)		
지구촌 교육 나눔사업_ 브릿지 프로그램	464,567,485	139,789,903	1,060,000,000	57,819,744	1,722,177,132	419,795,121
고잉투게더 캠페인		162,371,000			162,371,000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포럼	30,109,000				30,109,000	
행정비	30,363,998	41,600,000	176,426		71,963,998	134,752,257
차기이월	546,220,568		0	8,326,810	554,547,378	
합계	1,415,021,954		1,060,000,000	66,146,554	2,541,168,508	



투게더, 함께일 때 더 빛나는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드는
투게더 브레이슬릿



여러분의 손목에서 시작되는 희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키우고,
배움의 기회를 얻으며,
다양성을 품는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듭니다.



유네스코 프렌즈 이재성 축구선수

* 기존 후원자님의 경우, 3만원 이상의 일시후원을 통해 투게더 브레이슬릿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참여하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375301-04-106542(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문의 1800-9971

20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업 연차보고서

퍼낸날	2024년 8월 31일
표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낸이	한경구
엮은이	후원홍보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https://peace.unesco.or.kr
전자우편	peace@unesco.or.kr
간행물등록번호	PR-2024-RP-1





함께 만드는 미래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